공여래장은 진공, 불공여래장은 묘유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㉔ 여래장(如來藏)

"세존이시여, 여래장의 지혜는 바로 여래의 공(空)한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장(如來藏)이란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큰 힘을 가진 보살(大力菩薩)들로서는 본래부터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두 가지 여래장의 공한 지혜가 있사온데, 세존이시여, 공한 여래장(空如來藏)은 온갖 번뇌장을 여의었거나 벗어났거나 다른 것이고, 공하지 않는 여래장(不空如來藏)은 항하의 모래보다도 많은 여의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불가사의한 불법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두 가지 공한 지혜로 모든 큰 성문들은 여래를 믿습니다.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공한 지혜는 네 가지 뒤바뀌지 아니한 경계에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일체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본래부터 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고통이 소멸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증득하시는 것이니, 일체 번뇌장을 깨뜨리고 온갖 고를 멸하는 도를 닦는 것입니다."

여래장의 지혜를 공여래장(空如來藏)과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하고, 공하지 않는 것이 실은 하나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빈 병이 하나 있으면 병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없다는 뜻에서 "병이 비었다"할 때 이는 공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병이 비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병 속에 넣을 수 있다" 할 때는 비어 있는 자체가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뜻에서는 "공한 것이 공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과 불공의 두 가지 측면이 똑같이 빈 병 하나에 동시에 있는 것이다. 여래장도 이와 같은 이치에서 공과 불공으로 설명된 것이다.

원래 공(空)이란 말은 범어 순야(舜若, sunya)를 번역한 말로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 불변의 속성이나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곧잘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말로 이 '공'이라는 말을 써 왔다. 특히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먼저 공관(空觀)을 닦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의 이치를 터득해야 반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이 공이 무상(無常)과도 연결되어 설명되는 경우도 있다. 〈대품반야경〉에 "무상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무상이다.(無常卽是空 空卽是無常)"는 말이 나와 있다. 〈반야심경〉에도 '오온개공(五蘊皆空)'이라 하여 공을 통하여 지혜를 완성한다고 하였다. 승만 부인의 말 가운데 '여래의 지혜는 바로 여래의 공한 지혜'라는 말이 번뇌가 완전히 공해진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리키는 말로 무명주지가 남아 있지 않은 여래장을 말한다. "아라한이나 벽지불의 공한 지혜가 네 가지 뒤바뀌지 아니한 경계에서 움직이는 것"이란 말은 네 가지 전도, 곧 열반의 네 가지 덕(德)인 상(常), 낙(樂), 아(我), 정(淨)에 대하여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부정(不淨)의 중생의 현실을 부정하고 열반을 구하려는 편협한 소견을 두고 한 말이다. 말하자면 진속불이(眞俗不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다. 불교의 여러 종파마다 공의 이치를 천명하고 공관을 닦을 것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자칫 공에 치우쳐 공견(空見)에 빠지면 이것이 병이 되어 수행을 그르친다고 말해 왔다. 그래서 공병(空病)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공견을 가지거나 공병에 빠지면 인과(因果)를 부정하게 되고 나아가 중도를 등지게 된다. 그래서 공하다는 것도 공하다는 뜻으로 공공(空空)이라는 말이 나왔고 〈금강경〉의 대의를 밝히는 말에 나온 것처럼 아공(我空), 법공(法空) 다음에 구공(俱空)이라는 말을 썼다. 아공이나 법공 그 자체도 공하다는 것이다.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은 〈원각경소〉에서 "공에 대하여 공이라는 견해를 빠지면 전도가 된다. 공에 집착하지 않아야 실법(實法)이다"고 하였다. 또 공의 참뜻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온 말이 진공묘유(眞空妙有)이다. 진정한 공 속에는 미묘한 것이 갖춰져 있다는 말이다. 〈승만경〉의 공여래장은 진공이고 불공여래장은 묘유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여래십호 부처님 공덕 단절 없이 염해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㊼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2. 염불수행할 때 염(念)의 대상과 관(觀)의 대상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을 할 때 염(念)의 대상은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을 통해 "염(念)의 대상은 부처님의 공덕이고, 관(觀)의 대상은 부처님의 형상이다."고 분명히 염(念)의 대상과 관(觀)의 대상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염불수행을 할 때의 염(念)의 대상은 부처님의 공덕이며 관(觀)의 대상은 '부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인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즉 여래십호(如來十號)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래십호(如來十號)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중 첫 번째 '여래(如來)'는 '모든 부처님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응공(應供)'은 '온갖 번뇌를 끊어서 인간과 천인으로부터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덕을 갖춘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 '정변지(正遍知)'는 한역으로는 등정각(等正覺), 정등각(正等覺), 정등정각, 등각(等覺), 정각(正覺)이라고 의역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부처님은 일체의 모든 지혜를 두루 갖추셨기 때문에 세계와 우주의 모든 물질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모두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명행족(明行足)'이란 말의 의미는 부처님은 계정혜 삼학을 두루 구족하여 무상정변지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열반경〉에서 설하기를, "'명(明)'이란 '더없이 높은(無上)', '바르고 두루 아는 것(正遍知)'을 의미하며, '행족(行足)'은 '각족(脚足)'이란 의미로 계·정·혜 삼학(三學)을 가리킨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의 삼명(三明)을 밝게 아는 지혜와 신체, 언어, 행동 등이 다 함께 완전한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선서(善逝)'는 '잘 갔다'라는 의미인 '호거(好去)', '묘왕(妙往)'이라고 의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서 열반의 저 언덕에 잘 가셨으므로 다시는 생사의 바다로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세간해(世間解)'는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깨달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능히 세간의 모든 일을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무상사(無上士)'는 부처님은 일체 중생 가운데서 가장 높아서 '위가 없는 대사'라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조어장부(調御丈夫)'는 부처님은 대자(大慈)·대비(大悲)·대지(大智)로써 중생을 대하시며 부드러운 말, 간절한 말, 또는 여러 가지 말을 써서 중생들을 잘 통제하여 올바른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인도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천인사(天人師)'는 부처님은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열 번째 '불세존(佛世尊)'의 불(佛)은 '깨달은 사람' 즉 각자(覺者)라 번역하며, 세존(世尊)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친 불세존(佛世尊)은 아홉 가지의 원만한 덕상을 갖추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염불 수행을 할 때 이와 같은 여래십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의 공덕을 단절 없이 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㉔ 고귀한 구함의 경 ①

생로병사, 누구에게도 온 적 없다

"생겨남에 묶여 있지만 생겨남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생겨남에 묶여 있지 않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늙음에 묶여 있지만 늙음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늙음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병듦에 묶여 있지만 병듦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병듦에 묶여 있지 않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죽음에 묶여 있지만 죽음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죽음에 묶여 있지 않은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슬픔에 묶여 있지만 슬픔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슬픔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고, 오염에 묶여 있지만 오염에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을 알고, 오염에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을 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삶 속에서 불가항력의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믿음을 내고 도와 달라 기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다.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누구나 자신에게 생로병사가 있다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면 생로병사가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하지만 막상 버리려고 하면 말처럼 쉽게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쉽게 버려지지 않는 마음이 수행의 시작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쉽게 버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궁구해 보라. 어떤 때는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이지만 나라고 하기에 망설여진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실수나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의 일이 아니기를 내심 바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왜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실 두 마음 어디에도 내 마음이라 할 것이 없다. 만약 내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마음은 나를 번민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 한다면, 그 선택 자체가 번민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는 없다.

선택 없는 삶이 있을까?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선택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마음과 함께 있는 물질, 느낌, 인식, 욕구, 의식을 나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알면 생로병사에 묶여 있는 것은 오온이지 스스로가 아님도 알 수 있다. 수행을 하든 삶을 살든,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기만 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의문들이 일시에 알아지고 사라질 것이다.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이라는 것은, 어느 쪽은 옳고 어느 쪽은 옳지 않다든가, 어느 쪽은 좋고 어느 쪽은 나쁘다는 선택의 위험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개체의 옳고 그름은 힘의 작용이지 진리의 작용이 아니다. 진리는 옳고 그름이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타난 적이 없으므로 묶여 있지 않은 위없는 안온인 열반의 구족을 알게 된다.

수행을 '묶여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서 풀려나는 것'으로 알고 시작하면 묶여 있는 것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존재는 텅 비어 있으므로 어떤 것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그래서 풀어야 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묶여 있는 것이 없는 줄 알고 무엇이 무엇으로 묶는지를 통찰로 꿰뚫어 본다면 더 이상 풀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님이 드러날 것이다. 수행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세월이 흘러간 만큼 실망감도 크겠지만, 물들 수 없는 것을 물들이는 자를 살필 줄 알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생로병사 누구에게도 온 적 없었는데
생로병사 벗어나려 무던히 고생만 하였네.
산천초목 나타났다지만 그 나타남 오온의 망상임을 모르니
허구한 날 사라지는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울었네.
나타나고 사라짐 어디에도 그러한 것 있은 적 없는 줄 알고 나니
열반이 있어 열반이라 말하는 것 아닌 줄 아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심장구멍·고혈압·호흡곤란까지…
기로에 선 어린생명

스리랑카에서 온 말리트씨 딸 미실캬라 태어나자마자 치료실 행
3000만원 병원비로 지불…매일 100만원씩 갚아야 할 15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